



쿼드러플 보기·콘도르는 뭘까? 아마추어는 몰라도 돼요



양파? 쿼드러플 보기?

쿼드러플 보기(quaduple bogey). 발음도 힘들다. 골프 뉴스에 어쩌다 등장하는 어려운 말이다.

골프에서 기준 타수보다 4타 더 친 스코어를 말한다. 다 알다시피 기준 타수는 파(par)다. 파보다 1타 더 치면 보기, 2타 더 치면 더블보기, 3타 더 치면 트리플 보기다. 트리플 보기까지는 입에서나 귀에서나 낯설지 않다.

쿼드러플 보기는 왜 이렇게나 생소할까?

대부분 쿼드러플 보기 대신 '양파'라는 속어를 쓰기 때문이다. 양파는 두 양(兩)과 파(par)를 합친 한자와 영어의 혼혈어다. 휴대폰을 비롯해 우리말에는 한자와 영어를 합친 말이 적지 않으니 그리 이상할 건 없다. 파 4홀에서 8타를 쳤다면 '양파했다'고 하지, '쿼드러플 보기했다'는 사람은 없다.

쿼드러플 보기라는 공식 용어는 참 생소하다. 사실 파 4홀에서 8타를 치는 쿼드러플 보기는 흔하다. 프로 선수도 종종 스코어카드에 적어내는 게 쿼드러플 보기다. 아마추어 골퍼는 라운드할 때마다 겪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퀸튜플·섹스튜플·셉투플... 보기 앞에 라틴어 숫자를

그렇다면 기준 타수보다 5타 더 치는 건 뭐라고 부를까. 퀸튜플보기(quintuple bogey)이다. 퀸튜플 보기도 골프 뉴스에 아주 드물게 등장한다.

기준 타수보다 6타 더 치면 섹스튜플 보기(sextuple bogey)다. 올해 섹스튜플 보기가 한번 골프 뉴스를 탔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SM클래식에 출전한 강성훈이 3라운드 16번 홀(파4)에서 8은 2 퍼트로 돌아왔다.

7타 더 치면 셉투플 보기(septuple bogey), 8타를 더 치면 옥투플 보기(octuple bogey), 9개를 더 치면 노누플 보기(nonuple bogey), 10타를 더 치면 데큐플 보기(decuple bogey)라고 한다.

트리플 보기 이상은 모두 보기라는 용어 앞에 숫자를 나타내는 라틴어를 붙인다는 점도 흥미롭다. 11타 이상도 다 이름이 따로 있지만, 굳이 더는 소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더블 보기까지만 적으시다” 그런데 이처럼 입에 붙지 않는 용어는 몰라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골퍼가 많다.

지난 2019년 바뀐 골프 규칙은 '맥시멈 스코어' 규정을 도입했다. 합의해 정하기만 하면 일정 타수 이상 스코어를 기록했을 때 돌아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다 스코어는 더블 보기까지만 합시다"라고 정하면 트리플보기 이상 스코어는 스코어카드에서 사라진다. 아무리 못 쳐도 더블보기다. 이 '맥시멈 스코어' 규정을 활용하면 쿼드러

플 보기 같은 복잡한 용어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맥시멈 스코어'를 '데큐플 보기'로 정한다면, 이 발음하기 힘든 용어 대부분을 외어야 한다.

파보다 3타 덜 치면 엘버트로스 또는 더블 이글

기준 타수(파)보다 1타 덜 치면 버디(birdie)라는 건 상식이다. 2타를 적게 치면 이글(eagle)이다. 파 3홀에서 티샷한 볼이 홀에 들어가는 홀인원도 스코어로는 이글이다.

기준 타수보다 3타 덜 치면 엘버트로스(albatross)다. 미국에서는 엘버트로스 대신 더블 이글(double Eagle)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 미국 골프 중계방송에서는 거의 더블 이글이라고 한다.

버디는 아마추어도 솔하게 경험한다. 초보도 운이 좋으면 하는 게 버디다. 이글 역시 주말 골퍼라도 더러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 드문 게 아니다.

4타 줄이는 '콘도르' 기록은 역사상 다섯 차례

엘버트로스는 프로 대회에서도 1년에 두세 번 나올까 말까다. 엘버트로스의 가장 흔한 유형은 파 5홀에서 두 번째 샷 돌아오는 것이다. 프로 대회에서 엘버트로스가 나왔다면 필경

파 5홀에서 투은을 노린 볼이 홀에 들어간 것이다.

파 4홀에서 홀인원을 해도 엘버트로스다. PGA투어에서는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진기록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름은 알아두는 게 좋을 듯하다. 4타를 덜 치면 콘도르(condor)라고 한다.

특이한 점은 이글이나 엘버트로스, 콘도르 모두 새 이름이라는 사실이다. 타수가 적어 질수록 새의 명칭이 커진다.

콘도르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파 5홀에서 홀인원을 해야 한다. 아무리 짧은 파 5홀이라도 한 번에 그린에 볼을 올리는 건 정말 어렵다. 기록에 남아 있는 콘도르는 지금까지 다섯 번이다. 대부분 도그레그 파 5홀에서 나왔다. 2020년에 미국에서 667야드짜리 파 6홀에서 두 번 만에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다.

5타를 덜 치는 '오스트리치'(ostrich)라는 용어도 있다. 이는 파 6홀 홀인원이나 파 7홀에서 두 번 만에 돌아와야 적어낼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오스트리치 실제 기록은 아직 없다.

주말 골퍼는 엘버트로스 또는 더블 이글까지만 알아도 될 듯하다. ①

[EPA-연합뉴스] 마스터스 경기 도중 엘버트로스를 기록하고 환호하는 루이 우스티히즌(남아공)과 캐디.